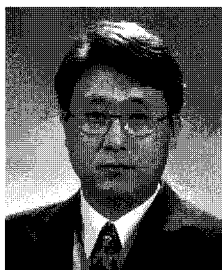


당뇨모임의 중요성

당뇨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남 홍 우

국립의료원 내과 전문의

당뇨병환자 모임이란 당뇨병환자들이 어떤 공통된 목적(교육적, 오락적, 경제적, 종교적 등)을 위해 모인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이라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모임은 크기에 따라 작은 규모의 것에서 전국적, 세계적 규모의 모임도 있고, 조직의 정비 정도에 따라 험거운 것에서 잘 짜여진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즉, 환자모임체의 성격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규모, 조직, 참가대상, 활동 등이 각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등산모임은 등산을 중심으로, 역사탐방모임은 역사탐방을 위주로, 외식모임은 식사요법을 주로 하여,

캠프모임은 캠프 준비와 실시를 주축으로, 특정 병의원에 다니는 환자들의 모임은 그 병의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적 범주 내에서, 전국 규모의 협회는 전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기 합당한 규모, 조직, 참가 대상을 설정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가지 가지인 당뇨환자 모임체의 중요성과 현황 역시 다방면의 시각으로 접근되어질 수 있다.

당뇨병환자 모임체의 필요성

당뇨병 관리의 특성을 생각할 때 당뇨병

환자 모임체의 중요성은 그다지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당뇨병환자의 모임체를 당뇨병에 대한 것만이 아닌 환자로 일컬어지는 개개인의 사회화라는 점도 함께 생각되어야 한다.

1. 당뇨병 교육과 관리 측면에서의 중요성

당뇨병 관리와 교육의 질 개선은 지속적인 교육전달 체계의 평가에 따른 개선에 의해 향상된다. 당뇨병 관리와 교육의 실시, 평가, 개선에서 강조되는 것은 환자의 교육, 관리에의 욕구이다.

당뇨병환자는 의료제공자들과 다름없이 각각의 욕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환자와 당뇨병 담당 의료인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완벽한 의료팀의 지식, 경험, 창조적 사고와 환자의 지식과 경험 및 사고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의 지나친 우위는 처음 기대한 효과에 미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쪽의 무게가 잘 균형잡힌 환자 모임체는 동병상련의 친목, 교류를 통하여 서로 격려함으로써 능동성을 높여 치료를 게을리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당뇨 모임체는 이웃을 포함한 주변의 지역 사회인들로부터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들을 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잘 조직된 모임체는 능력을 모아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당뇨병환자들에게 이익과 치료에 관한 정보, 최신 지견 등을 제공한다. 전국 규모이며 법적 지위를 획득한 모임체는 환자와 정부간의 간격을 좁혀 당뇨병과 관련된 공중 정책에 발전적 영향을 주어 복지 향상,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약제,

의료기구의 정당한 수급 체제 확립, 정책적 로비, 당뇨병 연구 기금의 지원, 당뇨캠프를 위한 기금 조성, 사이버 의료 행위의 발본근절, 그릇된 홍보 매체의 제재 등의 실질적 사업을 수행한다.

한 예로 1950년 9월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결성된 세계당뇨병연맹(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은 각국의 의사와 의사가 아닌 대표로 구성되는데 당뇨병에 관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취합, 전달하며 당뇨병환자들의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안녕을 위한 활동 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 당뇨병 관리의 규범 설정과 개선, 의학 연구 진작, 교육 방법의 개발, 홍보 교육, 당뇨병 연합 창설의 지원 -

이와 같이 당뇨병환자 모임체는 규모에 따라 활동의 영역에 차이가 있으나 어떤 모임체든 당뇨병의 올바른 관리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2. 사회화 측면에서의 중요성

당뇨환자 모임체 역시 하나의 사회화 형태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능한 사회적인 존재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 존재이며 또한 무엇을 감지하고, 판단하고, 배우고, 생각하는 정신적(심리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사회화는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적절한 기술, 지식, 가치, 역할 등을 학습하는 것이다.

개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자기의 성격과 적응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기관에 참여하여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회화이다. 사회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하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개인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자신을 통합시키고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일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회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뇨병환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음으로써 변형이 가해져야 하는 식사, 운동, 약물 등의 의학적 요구를 비롯한 생활의 변화에 관하여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가며 익힐 수 있는 사회화의 하나는 분명 환자 모임체이다.

환자의 사회화의 한 표현으로서의 환자 모임체는 환자 모임체가 형성되는 병원이나 단체의 입장(실제로는 의료팀의 입장)에서는 개인을 사회화시키기 위한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제도나 프로그램을 세우고 각 개인에게 권고 또는 강요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공식적 조직화라는 두 변수가 균형을 이루는 잘 짜여진 환자 모임체는 파워를 갖게 되어 외부로 그 파워를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당뇨병에 관한 자원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한다.

당뇨환자 모임체의 국내 현황

환자 모임체의 발생을 자연발생과 의도발생으로 구분하면, 자연발생의 예로는 같은 병원을 다니다가 또는 같은 직장, 지역에 근무하거나 살다가 등산을 같이 가거나 산보를 같이 하다가 자연스레 점차 모임체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의도발생은 교육적 의도이든, 경쟁적 의도이든, 경제적 의도이든, 또는 환자들의 의도이든, 의료인의 의도이든 조직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국립의료원의 '무궁화회', 서울 백병원의 '엄나무회'와 같이 동일한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의 조직이 정비된 환자 모임체를 비롯하여 병원이라는 장소 중심의 환자 모임이 성립되어 있다.

또한 서울 및 지역 대도시에서 하계 캠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친목 형식의 모임들이 있다. 더구나 고무적인 것은 1995년 국가에서 완비된 법인체로 인정받은 '한국당뇨협회'가 전국적 규모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주적 환자들만의 대단위 모임체로 창립하였다는 것이다. 당뇨병 교실을 포함하여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당뇨환자 모임체들 중에서 당뇨병 전문의들이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임체들을 위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1. 국내 환자 모임체 구분

1) 규모에 의한 구분

- 전국적 규모 : 한국당뇨협회
- 지역적 규모 : 대부분의 하계 캠프(경인, 전남, 대구, 영남, 대전, 부산, 경남)등
- 병원 규모 : 국립의료원(무궁화회), 서울 백병원(엄나무회), 서울대병원(서당회), 신촌세브란스병원 청년모임 등
- 병·의원 규모 : 당뇨병 교실, 뷔페 교실, 광주기독병원 인터넷 모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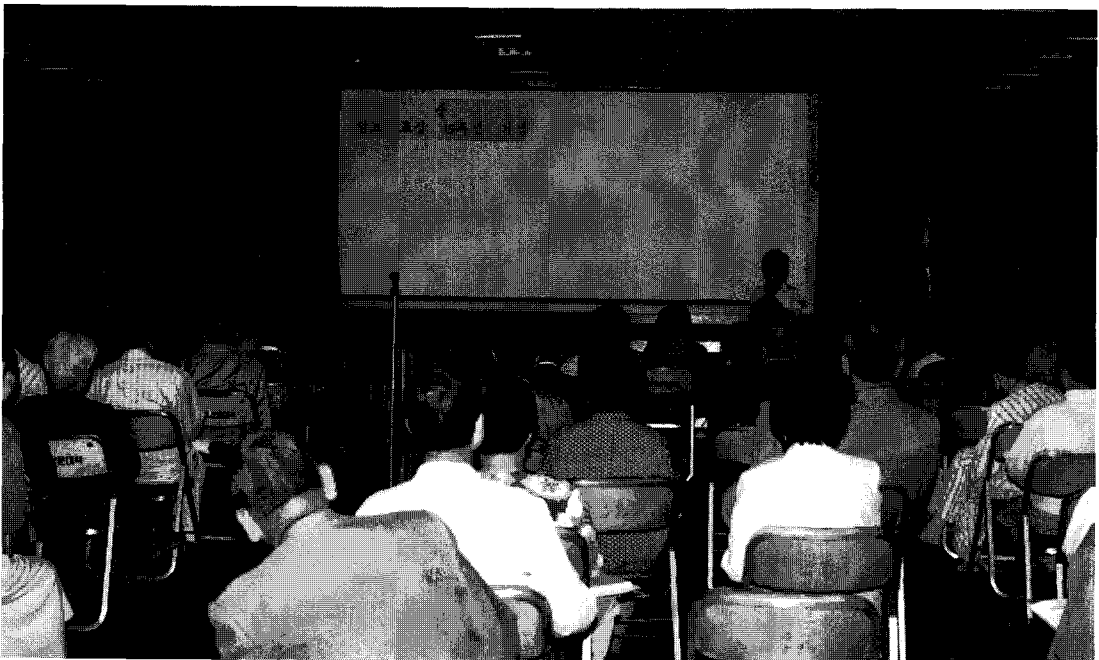
2)상설 여부

- 상설 모임체 : 병·의원 당뇨교실, 한국당뇨협회, 무궁화회, 엄나무회, 서당회, 인터넷 모임 등
- 비상설 모임체 : 모든 하계 캠프, 상록 등산회 등

그러나 국내의 환자 모임체의 정확한 수

리적 파악은 어려우며 이러한 모임체의 활동 현황에 관하여는 하계 캠프 모임체나 한국당뇨협회와 같이 정기적 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파악이 쉽지 않다.

이상으로 당뇨환자 모임체의 중요성과 국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모임체는 더욱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모임체가 여러 곳에서 태동하고 있다. 이즈음에 당뇨병 관리, 좁게는 당뇨병 교육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과 함께 당뇨환자 모임체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산출되어야 하겠다. 또한 당뇨병환자는 당뇨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당뇨관리 정보를 습득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이끌어야겠다. **DAK**



국립의료원 당뇨교실 15주년 기념행사의 모습